

◎한국 IPG의 활동

· 제34회 한국IPG세미나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주제로 개최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6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7
-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
- 온라인 위조품 시장의 최근 동향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봄의 발걸음 소리가 커져 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으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2년 12월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2023년 특허청 예산은 얼마일까요?

- ① 739억 원
- ② 7,390억 원
- ③ 7조 3,900억 원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제34회 한국IPG세미나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주제로 개최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라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외 국가의 지식재산 정보도 수집하여 글로벌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IPG세미나에서는 작년에 베이징과 홍콩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과 더불어 중국(홍콩 포함) 지식재산 업계의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작년 세미나의 호평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2023년 2월 1일에 제34회 한국IPG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를 개최하여,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 지식재산 업계의 최신 동향을 폭넓게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후술하는 중국 정부 발표자료의 중국어 원문과 일본어 번역본은 JETRO 중국 지식재산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world/asia/cn/i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장국건설강요(2021~2035)

2021년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 JETRO 베이징사무소 JETRO 홍콩사무소

회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장국건설강요(2021~2035)’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강요는 2008년 6월에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13년 만에 갱신하는 중국지식재산정책의 장기계획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의 장기목표 계획에 맞춰 2035년을 목표 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부장
오타 요시타카



지식재산부장
시마다 히데타카

●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

1. 2022년 한국 지식재산 10대 뉴스

• 10위: 소강상태에 접어든 한국 산업재산권 출원

한국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건수는 2019년에 최초로 합계 50만 건을, 2020년에는 5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60만 건에 육박해,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556,436건(전년 대비 6.1% 감소)으로,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상세 내용을 보면 특허 23만 7,633건(전년 대비 0.2% 감소), 실용신안 3,084건(전년 대비 23.1% 감소), 디자인 5만 6,641건(전년 대비 12.6% 감소), 상표 25만 9,078건(전년 대비 9.4% 감소)으로, 특히 디자인이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 9위: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제2탄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가 출원되어 화제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2022년 3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백서(184페이지)’를 발행해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취급 방법에 대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은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2022년 9월 18일 자로 AI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습니다.

• 8위: 상표심사기간 장기화

최근 세계적으로 상표출원 건수가 연이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김없이 2012년 13만 3,000건에서 2021년 28만 6,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상표 1차심사기간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4.8개월, 2020년 8.9개월이었던 1차 심사기간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5월에 14.8개월로 늘어나 상당히 장기화된 상태입니다. 신속히 결과가 필요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 7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한국 국회에 독일의 전문가 증거조사제도와 일본의 사증제도를 참고

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악용을 우려하는 한국 산업계의 반발로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본원고 집필 시점(2023년 2월)에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6위: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 연장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어(상표법의 경우 2022년 4월 20일 기준 재심사제도가 없었으나 2023년 2월 4일에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장 절차를 위해 별도로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한국 특허청에 심판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위: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기본계획 수립

한국에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 해당)’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5년마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 및 실행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제30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어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년)’이 수립 및 공포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기본계획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 특허청이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계획 전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html>

(‘韩国政府の動き’ 탭 확인)

• 4위: 정권 교체가 지식재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5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특허제도 도입과 기술 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특허 행정 혁신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제도 관련 언급이 적은 것으로 보아 정권 교체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위: 한국 특허청, 정권 교체 후 첫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 발표

2022년 8월 18일, 한국 특허청은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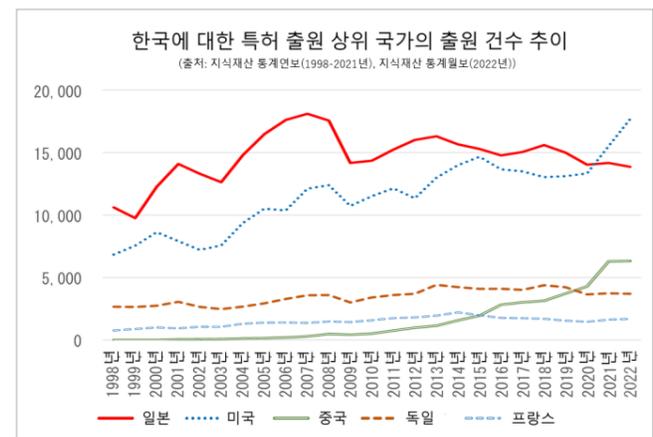
이 ‘정책방향’에는 상기에서 5위로 소개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을 답습하는 부분도 있는 한편 반도체 분야 퇴직 전문인력 등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함에 따른 특허심사 신속화, 특허박스 제도 도입(※1), 비밀특허제도 도입(※2) 등 기본계획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1 특허 특허권 등 특정 종류의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을 인정하는 조세 조치로 한국에서는 2021년 4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는 이미 국방 관련 기술에 대해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비밀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기에 서 4위로 소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 2위: 일본의 한국 특허출원 건수, 2위로 하락

외국의 한국 특허출원 건수는 줄곧 일본이 선두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미국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하락했으며 2022년에는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 1위: 한국 특허청 최초 민간 출신 여성 청장 취임

2022년 5월 31일, 제28대 한국 특허청장으로 첫 여성이자 첫 민간 출신인 이인실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인실 청장은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CEIPI),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5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오랜 기간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활약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공직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II. 최신 동향

2023년 서두를 장식하는 한국 지식재산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합니다.

1.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 1위는 삼성전자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가 발표한 2022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 랭킹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제3탄

2023년 1월 5일 자 한국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DABUS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무효처분된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20일, 출원인(인공지능 전문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3. 한국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한국 특허청은 2023년 1월 19일,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답은 @7,39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5% 증가한 규모로, 주요 항목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KOREA
IP NEWS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개시 | 한국특허청 (2022.11.1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공개채용한다.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은 현장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되는 5급 상당의 국가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되어 신규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0명이며, 특허출원량 등을 고려하여 총 6개 세부분야(①반도체 설계·소자 분야/②노광·증착 분야/③식각·세정·기판 분야/④조립·검사·패키징 분야/⑤소재 분야/⑥디스플레이 특화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이번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은 이인실 청장 취임 이후 추진한 최우선 역점과제의 하나로 행안부·기재부와 5개월 여의 노력지 않은 협의 끝에 얻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된다.

② 20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한국특허청 (2022.12.27)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 차단용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일부 물품은 기존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되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 한국특허청 (2023.1.5)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12.20.)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④ 2022년 특허출원 동향 | 한국특허청 (2023.1.30)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2년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출원) 및 반도체·디지탈통신 등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분야 출원은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년 국내특허출원은 23.7만 건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했다고30일 밝혔다. 기술 분야별 내국인출원에서는 반도체(18.3%), 전자상거래(7.5%), 전자(디지탈)통신(5.8%)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토목공학(△17.1%)과 마스크 등 기타소비재(△16.1%) 분야는 감소하였다. 내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출원 증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큰 틀 아래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전자(디지탈)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2022년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인 경우 총 21,91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여, 이는 5년간(2018~2022) 평균 증가율(6.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이나,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은 증가하여,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국가별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미국(14%),유럽(3.9%)이 증가한 반면 중국(△0.1%), 일본(△2.2%)은 감소하였다. 반도체 분야 외국인 출원 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내 반도체 출원이 증가한 반면, 일본·대만의 국내 출원은 감소하였다. ^{1)IPD}

File No.170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한국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한국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J-PlatPat'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보를 무료로 간단히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PRIS'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소개하겠습니다.

1. 언제 사용할까?

산업재산권 정보란, 각국의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정보와 경과 정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발명과 아이디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원시 등록 가능 여부 예측

산업재산권 제도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사람이 출원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면 권리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전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고안한 발명 및 상표 등을 출원했을 때 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등록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침해 예방

산업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경고장을 받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침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기술 개발 힌트 획득 및 중복 연구 방지

수많은 기술적 과제들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 정보 조사를 통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면, 타인이 이미 해결한 과제를 괜히 중복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과 노력을 대신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일본 산업재산권, 한국 산업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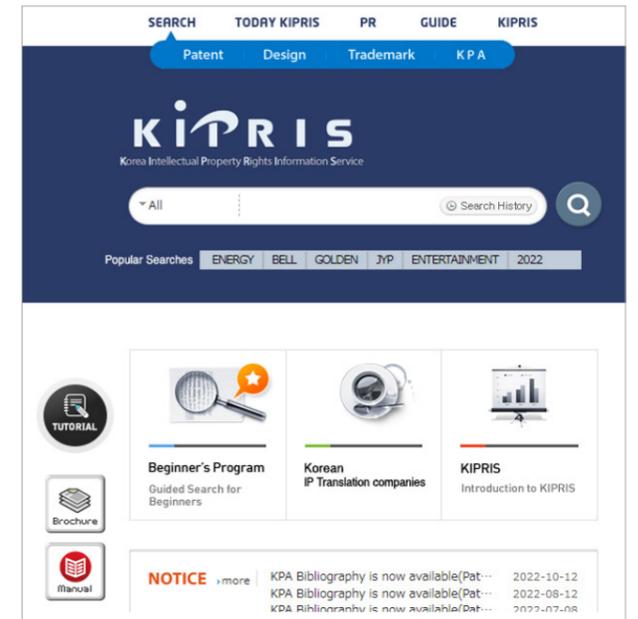
산업재산권 제도는 각국에 독립적으로 출원된 출원을 해당 국가에서 각각 심사해 각각 등록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하려면 해당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J-PlatPat이 널리 쓰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KIPRIS가 많이 쓰입니다.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사한다면 KIPRIS를 사용해 보십시오.

3. KIPRIS 사용법

KIPRIS는 아래 URL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한국어 버전뿐 아니라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단, 한국어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http://eng.kipris.or.kr/enghome/main.jsp



출처: KIPRIS 홈페이지(영어 버전)

JETRO 서울사무소에서는 KIPRIS 사용법을 소개한 'KIPRIS 간이 매뉴얼'을 제작해 2022년 10월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꼭 KIPRIS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IPD}

<이번 호 해설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관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온라인 위조품 시장의 최근 동향



전세계 온라인 시장이 국경을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위조품 피해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조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루이비통, 에르메스, 롤렉스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겠지만, 위조품 문제는 더 이상 명품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한 중소기업도 위조품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 위조품 탐지 및 제거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위조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1. 히트 & 런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위조품으로부터 정품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 신고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업무 시간 외 또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조품 판매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만 위조품을 대량 판매한 후, 월요일 업무 시간 전에 판매 링크를 자발적으로 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매주 반복합니다. 이런 지능적인 위조품 판매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손을 댈 수 없는 시간대에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쇼핑물에서 SNS로

최근 위조품 판매업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속이 힘든 SNS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등에서 유명 브랜드를 검색하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페이지 수백 개로 연결되며, 이들 대부분이 위조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은 개인 간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NS를 통한 거래량은 꽤 큰 규모로 추정되에도, 대부분이 개인 셀러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물론, 탐지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3. 온라인 중고품 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서 중고품을 위장하여 위조품을 판매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중고품 플랫폼에서는 신제품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브랜드 측에서는

가격을 근거로 비정품을 정확하게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중고품 시장에서는 약간 사용감이 있는 정품처럼 위조품을 판매하는 케이스가 더불어, 위조품을 정확하게 가려내지 않는 중고품 거래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당당히 위조품을 판매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4.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는 위조품

위조품 문제는 소수의 명품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브랜드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는 소비자가 이미 위조품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입한 제품의 품질이 낮더라도 해당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브랜드는 정품인지 위조품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품질이 낮으면 해당 중소기업 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한번 평판이나 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는 기업의 사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션브랜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인지도를 확보하기 시작하므로, 이 시점부터는 위조품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5. 제언

과거, 위조품은 상품명을 포함한 제품 디자인을 최대한 정품과 동일하게 위조하는 형태가 전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조품의 형태와 판매방식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발전하였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진화한 위조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지능적이고 정교한 탐지 기술이 요구되며, 위조품 제거의 경우에도 더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주식회사 FAIKERZ 대표 / 이종재 미국변호사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9년 New York Law School (J.D.) 졸업 후 뉴욕변호사 자격 취득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